

‘광양섬진강재첩’ 고유 가치·매력 알린다

시, 25일까지 ‘공동브랜드 디자인 공모전’ 개최 캐릭터·로고 디자인 등 4점 선정…상금 50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섬진강 재첩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20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섬진강재첩(갯조개)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양섬진강재첩 공동브랜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섬진강재첩이 손기 어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계기

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반영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13년 개발된 기존 재첩 캐릭터와 브랜드 디자인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개선해 제품 포장재와 홍보물, 기념품, 관광 콘텐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공동브랜드 캐릭터와 로고 디자인 개발로, 출품작은 캐릭터 기본형과 응용형, 공동브랜드 로고 및 캐릭터·로고 조합 디자인을 포함해야 한다.

‘MY광양’ 앱 내 ‘공모전 접수’ 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작품판 PDF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제출서류와 작품 규격 등을 확인한 뒤 전문가 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 순

으로 이어진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20개 작품을 대상으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며, 전문가 심사 점수와 시민 선호도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 규모는 총 4점, 총 상금 500만원으로 최우수상 1점 300만원, 우수상 1점 100만원, 장려상 2점 각 50만원이다. 수상자에게는 광양시장상이 수여되며 최종 결과는 11월 25일까지 광양시 홈페이지와 MY

광양 앱을 통해 발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광양 섬진강재첩(갯조개)의 고유한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참신한 디자인이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광양섬진강재첩의 인지도와 지역 수산식품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26 재여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
6. 10. 18. (일) 10:00 ~ 16:00 장소 여수세계섬박람회장 주최 여수시 주관 여수시가족센터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시가족센터가 주관한 ‘2026 재여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이 지난 18일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에서 열렸다. 행사 참가자들은 박람회장을 찾아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간을 둘러보며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여수세계섬박람회장, 지자체 교류·나눔 공간 활용

여수세계섬박람회장이 지역 간 교류와 다문화 소통, 나눔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채워졌다.

20일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박람회장에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협력 활동과 외국인·다문화가족 행사, 지역 단체의 나눔 활동이 잇따라 열렸다.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이 박람회장을 찾아 전시와 체험을 즐기며 교류하며 박람회의 의미를 더했다.

먼저 박성현 광양시장은 공무원들과 함께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방문해 주

박성현 광양시장 방문…시민에 홍보 등 협력 약속
외국인·다문화가족 한마당…문화 소통 시간 가져

요 전시·체험 공간을 둘러봤다. 박 시장은 더 많은 광양시민이 박람회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시가족센터가 주관한 ‘2026 재여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도 주행사장에서 열렸다. 행사 참가자들은 박람회장 곳곳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함께 어울

리며 문화적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의 나눔도 이어졌다. 여수시 한의사회는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찜자차와 전통 향낭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서영학 여수시장도 관람객들에게 전통 향낭을 직접 전달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김종기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섬과 육지의 활발한 교류가 섬의 새로운 기

성과 미래를 열어가듯 여수세계섬박람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섬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섬의 미래를 그려보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 5일 개막해 11월 4일까지 61일간 여수 돌산진모지구와 여수세계섬박람회장, 개도·금오도 일원에서 열린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순천 낙안읍성, 한복 착용시 무료 입장

내달 15일까지 운영…“문화유산 가치 향유”

한복 입은 방문객들은 순천 낙안읍성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에 따르면 다음달 15일까지 한복을 입고 낙안읍성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을 운영한다.

이번 무료입장 운영은 600년 역사를 간직한 낙안읍성의 전통적 매력을 널리 알리고, 한복과 어우러진 읍성의 아름다움을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무료입장 대상은 전통 한복을 상·하의 모두 제대로 갖춰 입은 관람객이다. 다만, 한복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거나 평상복에 치마만 걸치는 등 불안전하게

착용했을 경우 무료입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 낙안읍성은 원형이 잘 보존된 성곽과 초가집, 운치 있는 돌담길이 어우러져 있어 한복을 입고 거닐며 사진을 남기기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다.

관람객들은 민속문화축제와 주말 상설 공연 등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즐기고 한복과 어우러진 낙안읍성의 가을 정취도 만끽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이번 무료입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최근 제암산자연휴양림 숲속교육관에서 공직자 260여명을 대상으로 ‘2030 우리끼리 온 데이(ON DAY)’ 교육을 추진했다.

보성, ‘AR 팀빌딩·미니 운동회’ 개최

‘우리끼리 온데이’ 교육…“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최근 제암산자연휴양림 숲속교육관에서 20~30대 공직자 260여명을 대상으로 ‘2030 우리끼리 온 데이(ON DAY)’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젊은 공직자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직원들의 조직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고, 부서 간 교류와 동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직무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계 온(ON), 미래 온(ON), 보성 온(ON)’을 주제로 한 교육은 총 3기에 걸쳐 기수별 하루 과정으로 운영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증강현실(AR)을 활용한 팀 빌딩(Team Building), 소통 활동, 실내 미니 운동회 등으로 구성됐다.

증강현실 프로그램에서는 직원들이 조별로 태블릿을 활용해 지정된 장소를 이동하며 과제를 수행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경험했다.

또한 평소 업무상 교류가 적었던 다른 부서의 동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

고흥, 청정바다 재생지도 확 넓힌다

50억 투입…남부권 해역 1500ha 어장환경 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고흥군 남부권 청정 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1월부터 2027년까지 고흥 남부권 해역 약 1500ha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된다. 어장 내 오염퇴적물과 침적 폐기물 수거·처리, 어장 경운 등으로 어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생산 기반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흥 남부권 해역은 패류와 해조류 양식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으로, 지역 수산업의 중요한 생산기반을 이루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장 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수산자원의 서식 여건을 개선해 건강한 어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 어업인의 의견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어장 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어장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남부권 청정어장 재



생사업을 통해 어장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수산물 생산기반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어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득량만·여차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해 약 3300ha의 어장환경 개선을 완료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정어장 재생사업의 범위를 남부권으로 확대하게 됐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전통·현대 조화’ 구례동편제소리축제 성료

군, 대중성·창의성 더한 무대…다채로운 공연 선사

‘2026 구례동편제소리축제’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동편제의 분향인 구례에서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의로 세우고, 의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는 동편제의 정체성을 지킴서도 대중성과 창의성을 더한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판소리 다섯 마당인 춘향가·심정가·흥보가·수궁가·적벽가를 중심으로 명창들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을 마련해 판소리 고유의 멋과 흥을 전했다.

장석우 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의외 예의 고장인 구례의 정신을 소리와 음악, 춤으로 풀이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며 “동편제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젊은 소리꾼들이 동편제의 맥을 이어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길진 군수는 “구례동편제소리축제는 동편제의 분향인 구례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예술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편제 판소리의 보존과 계승에 힘써 구례의 소리와 멋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u9942@



‘2026 구례동편제소리축제’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청